

# 지식창조프로세스 기반 통합형 독서콘텐츠 관리

## A Study of the Union Reading Contents Management Based Knowledge Creating Processes

장 우 권(Woo-Kwon Chang)\*

### 〈목 차〉

I. 서론	4. 독서공간
II. 이론적 연구	5. 독서자원영역
1. 독서의 개념과 목적	6. 독서방법과 철학
2. 콘텐츠와 독서	7. 독서평가
3. 독서의 방법과 유형	IV. 지식창조프로세스 기반 독서콘텐츠 관리
4. 지식창조프로세스와 독서학습과정	1. 사회화형 독서콘텐츠
III. 독서콘텐츠지도 현황과 방법의 문제	2. 표출화형 독서콘텐츠
1. 독서지도자의 자질	3. 연결화형 독서콘텐츠
2. 책읽기와 도서선정	4. 내면화형 독서콘텐츠
3. 독서결과 중시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독서는 가장 전형적인 지식활동, 정보활동이다. 독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이며 그 자체이다. 이러한 생활의 일부로서 독서활동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출하는 인지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많은 독서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활동방안과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활동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독서학습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독서학습활동을 탐색하여 활성화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독서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한 지식창조형 독서활동 모형으로서 독서콘텐츠 관리이다.

주제어: 독서, 독서교육, 독서활동, 독서학습활동, 독서학습모형, 독서콘텐츠 관리

### Abstract

Reading is a typical representative knowledge and information activities. It is a part of the presents man and by itself. Read-learning is the cognitive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creating platonic world. However, in the education training of students become a visible problems of read-learning too many. To solve the problems have to pull off a systematical plan in read activities.

This aims to purpose the model of the union reading contents management as the method for the read activity based on the problems analysis of read-learning activity. It is reading contents management as the model knowledge creating processes.

Key Words: Reading, reading activity, Read-learning activity, Read-learning model, Reading contents management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연구교수(wk1961@mju.ac.kr)

• 접수일 : 2003. 11. 19     • 최초심사일 : 2003. 12. 1     • 최종심사일 : 2003. 12. 3

## I. 서 론

지식정보사회, 디지털사회라고 일컫는 오늘날 지식과 정보, 디지털자원이 어떻게 생성해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하여 보자. 이러한 지식정보자원들이 어떻게해서, 어떤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것은 바로 독서이다.

독서는 가장 전형적인 지식활동, 정보활동이다.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은 저자가 수집, 정리하여 놓은 지식과 정보의 전당이며, 독서는 바로 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지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글과의 능동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통합한다. 그리고 주어진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연상, 상상, 추리해내기도 한다.<sup>1)</sup> 또한 Nonaka는 이러한 지식창출은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교환을 통한 즉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환되는 사회화(socialization),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는 표출화(externalization), 형식지에서 형식지를 창출하는 연결화(combination),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변환되는 내면화(internalization)과정을 거치는 지식창조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는 것이다.<sup>2)</sup>

독서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도의 지적작용을 향상시키는 일이 지식정보화시대에 교육이 할 일이며, 독서교육은 그 핵심위치에 있다. 여기에서 독서교육은 독서학습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독서학습은 인지적 작용임과 동시에 지식구성작용이다. 이러한 독서학습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서학습을 구성하는 주요 측면을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구성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sup>3)</sup> 따라서 독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이며 그 자체이다. 이러한 생활의 일부로서 독서활동은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출하는 인지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인이나 학생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학습의 양식은 독서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시간과 독서 양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의 국민들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2003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간독서율이 성인은 93년도에 79.3%였던 것이 2002년에는 72%로 감소되었으며, 학생들은 93년도에 97.4%였던 것이 2002년에

1)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연구소, *독서와 정보*(서울 : 협성출판사, 2001), p.6.

2) I. Nonaka,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6, No.1 (1994), pp.14-37.

3) R. Schoenbach, C. Greenleaf, C. Cziko, and L. Hurwitz, *Reading for Understanding: A Guide to Improving Reading in Middle and High School Classrooms*(CA : Jossey-Bass Publishers, 1999).

4) 김경희 등, 제3회 국민독서실태조사(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1995).

는 89.6%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것은 정부기관이나 언론매체 등에서 ‘책을 읽자’라는 다양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우수한 성취를 하면서도 대학교육이후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 익숙하여 창의성을 요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해결력을 신장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독서학습활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서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활동방안과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활동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독서학습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독서학습활동을 탐색하여 활성화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Nonaka의 지식창조프로세스와 Schoenbach 등이 제안한 독서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한 지식창조형 독서활동 모형으로서 독서콘텐츠 관리이다.

## II. 이론적 연구

### 1. 독서의 개념과 목적

독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그만큼 독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경일은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문자기호를 알고, 문자기호의 뜻과 내용을 상기하여 자기의 경험과 결부시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사고과정이다”<sup>6)</sup> 하였으며, Staiger는 “독서는 필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부호화된 의미가 독자의 마음속에서 의미로 변하는 상호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이때의 상호작용 속에는 ① 읽을 자료, ② 독자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③ 독자의 생리적 및 지적 작용들의 세 가지가 항상 포함된다”<sup>7)</sup>고 하였다.

따라서 독서란 오랜 세월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저마다의 경험에서의 느낌과 생각을 기록해 놓은 도서를 배우고 익혀 자기의 경험과 결부시켜 자기문화를 구성해 나

5) 문화관광부, 2003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3, pp.46-47.

6) 김경일, 독서교육론(서울 : 일조각, 1980), p.18.

7) R. C. Staiger, "Reading in Today's World," In the Teaching of Reading, edited by R. C. Staiger(Paris: Unesco, 1973), p.15.;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전계서 p.18.에서 재인용.

가는 사고과정이다.

독서의 목적을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독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얻기 위해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량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많은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독서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즉 일상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서이다. 둘째, 조사연구를 위한 독서이다. 학교 및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식정보를 찾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독서이다. 이러한 독서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여가선용을 위한 독서이다. 취미나 여가활동을 통해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킨다. 넷째, 바람직한 정서와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인생을 배우기 위한 독서이다. 독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sup>8)</sup>

## 2. 콘텐츠와 독서

종전의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독후감을 쓰는 일련의 아날로그적 학습 과정이었다면 오늘날 독서는 텍스트, 데이터, 그래픽, 이미지 등 다매체 즉 멀티미디어 환경의 디지털 학습과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자의 독서콘텐츠는 서적이나 논문 등의 내용, 목차 등을 나타냈다면,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와 활용도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의 독서콘텐츠는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등의 정보의 내용물에서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DB정보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콘텐츠가 포함되고 있다.

디지털독서콘텐츠는 기존의 독서콘텐츠를 디지털화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인터넷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독서콘텐츠는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 또는 이용되는 다양한 독서정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교육, 법률, 의료, 증권 등 전문독서정보와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며 개인이나 조직에 형식지 또는 암묵지의 표현형태로 체화되는 광의의 개념의 독서콘텐츠를 나타내고 있다.

---

8) 박영목, “독서능력 신장 방안연구,” 국어교육, Vol.89(1995), pp.61-64.

### 3. 독서의 방법과 유형

독서의 가치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읽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읽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유형이 협회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새로운 방법들이 창안되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책을 즐겁게 읽고 알차게 읽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독서방법의 유형별 종류 및 특성에서 찾아보았고, 다음은 독서의 태도 측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유형별 종류 및 특성

홍판식은 여러 사람들의 독서유형을 종합하여 독서법의 유형별 분류 및 독서명칭(한자명, 한글명), 성격, 적용문종(適用文種) 등 해설에 있어서 총 136가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sup>9)</sup>

필자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즐겁게 읽는 법, 알차게 읽는 법 측면에서 독서방법의 유형(<표1>참조)을 다음과 같이 7 가지로 분류하였다.

#### 2) 독서태도별 종류 및 특성

##### (1) 독서삼도(讀書三到)

독서삼도는 구도(口到), 안도(眼到), 심도(心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뜻은 ‘입으로 다른 말을 아니하고,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말며, 마음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입, 눈, 그리고 마음을 통일하여 정성껏 글을 읽으면(정독(精讀)) 저절로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말로써 오늘날 까지도 최고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sup>10)</sup>는 독서법이다.

##### (2) SQ3R과 PQRST

SQ3R독서법은 로빈슨(F. P. Robinson)독서법이라고도 한다. 그는 효율적인 독서를 위한 독서향상방법으로 다섯단계를 연구 발표하였다. 이를 SQ3R독서방법이라고 한다. 이를 단계별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 홍판식, “독서지도의 올바른 방향모색,” 새국어교육, Vol.52(1996), pp.137-156.

10) 상계서, p.154.

〈표 1〉 독서방법의 유형별 종류

읽기관점(의미)		외형적	내용적	형태적	심층적	태도적	이해태도적	전반적
즐겁게 읽기(소리내어 읽기)		음독(낭독)	다독	적독(발췌독)	지독	순독	난독	교독/합독
알차게 읽기(차분하게 읽기)		묵독(목독)	정독	통독	속독	이독	미독	윤독
분류관점	독서법종류	성격 및 특성			적용문종		비고	
외형적	음독 (소리내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을 읽을 때 글자를 소리내어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동요, 운문, 각본 및 고전문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초기단계</li> <li>독서효과 적음</li> </ul>	
	목독(조용히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리를 내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소설, 연구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실</li> <li>독서효과 큼</li> </ul>	
	알파(a)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시 읽어 감동을 되살리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V뉴스를 신문에서, 명승부전, 특별뉴스</li> </ul>			
	베타(β)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설을 읽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설자 또는 제3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임</li> </ul>	
내용적	다독(많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가지 책을 많이 읽음(가리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종류의 책을 고루고루</li> </ul>	
	정독(천천히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을 주의깊게, 정성스럽게 천천히 글속의 내용을 맛보면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용 도서, 고전, 논설문, 시감상, 성경, 불경 등의 경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li> </ul>	
형태적	적독(부분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권의 책 가운데 꼭 필요한 부문만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사전, 백과사전, 예술사전, 동·식물도감 등 참고도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연구를 위해 필요 (지식정보)</li> </ul>	
	통독(전체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을 차례대로 빠짐없이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소설, 전기문, 논설문, 설명문, 알기 쉬운 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서, 명작</li> </ul>	
심층적	지독(천천히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데면데 면하게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문, 잡지 등의 광고나 만화</li> </ul>			
	속독(빨리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많은 양의 글을 빠른 속도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문의 글을 읽을 때, 동화, 소설, 전기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빨리 읽으면서 뜻을 이해</li> </ul>	
태도적	순독(입술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술을 놀리면서 흥얼흥얼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서, 시험공부, 외워야 할 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독이 훈련되기 전 효과적</li> </ul>	
	이독(귀로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읽는 내용에서 나오는 소리를 상상하여 귀로 들으면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상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li> </ul>	
이해태도적	미독(맛보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의 내용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작품, 현장, 선언문, 취지문, 전의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에 익숙한 사람에게 적당</li> </ul>	
	난독(아무렇게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무책이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마구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옳은 독서법이 아님</li> </ul>	
전반적	윤독(돌려가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사람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귀본, 고가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우 조심스럽게 읽음</li> </ul>	
	교독(번갈아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직자가 신도가 번갈아 읽는 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경, 불경, 코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li> </ul>	
	합독(함께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언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중한 독서법</li> </ul>	

제1단계는 개관(survey)이다.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목차의 내용이나 주제를 한번 훑어보고 대강의 내용과 개략을 얻고자 노력한다. 제2단계는 질문(question)이다. 각 주제나 제목에 대해 질문을 만들게 되면,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명확

해진다. 제3단계는 읽기(reading)이다. 2단계에서만 들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제4단계는 암송(recite)이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나서 다음 질문이나 주제가 있을 내용으로 넘어간다. 제5단계는 복습(review)이다. 자신의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억을 생각하게 해준다.

로빈슨 SQ3R독서법은 일반적인 독서법이라기 보다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야하는 경우에 더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지식을 축적해야 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인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여기에서 더욱 철저한 학습독서를 위한 방법으로 PQRST가 있는데 본래 SQ3R로서 알기 쉽고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알파벳순서로 만든 것이다. 이를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SQ3R과 PQRST 독서법

SQ3R	PQRST
S - Survey(전체 훑어보기)	P-PREVIEW(먼저 훑어보기)
Q-Question(문제점 찾기)	Q-Question(의문)
R-Reading(읽어보기)	R-Read(읽기)
R-Reciting(답하기)	S-Summarize(종합하기)
R-Reviewing(제고, 비판하기)	T-Test(맞추어보기, 다시보기)

위와 같은 독서법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Q3R=PQRST)

### (3) SSR

SSR(Sustained Silent Reading)은 학생들에게 읽을 시간과 읽을 장소와 충분한 읽을 자료를 제공해주고, 학생 스스로 읽기 자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독립적인 읽기 프로그램이다. 이 독서법은 전체 4단계로 되어 있으며, 1단계는 읽어주기 단계로, 부모나 교사가 그림책 등을 가지고 소리내어 글을 읽어주게 된다. 아동은 글자를 깨치고 따라 읽는다. 2단계는 같이 읽기이다. 아동이 어느 정도 글자를 깨치면서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고, 아동과 부모(혹은 교사)가 교대로 책을 읽게 된다. 이 단계까지는 음독이 특징이다. 3단계는 읽기 안내하기 단계이다. 학교에서 읽기 교육시간에 여러 가지 읽기 기능과 전략을 가르치는 단계이다. 음독에서 목독으로 넘어가게 된다. 교사는 읽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여러 가지 비계활동을 하게 된다. 4단계는 독립적 읽기이다. 아동이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을 독립적으로 자신의 독서목적(학습, 과제, 교양, 작업 등)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sup>12)</sup>

11) 한중경, 학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초(超)독서공부법(서울: 프레스빌, 1996), pp.104-107.

12) 천경록, “독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탐색,” 국어교육, No.111(2003), pp.191-193.

따라서 SSR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독서법이다.

#### (4) 기타 독서법

이외에 많은 독서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M. J. 아들러, C. 반 도렌의 독서법이 있다. 이 독서법은 전체 4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별 독서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제1단계는 초급독서로서,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독서이다.
- ② 제2단계는 점검독서로서, '시간 안에 되도록 내용을 파악하는 독서'이다.
- ③ 제3단계는 분석독서로서, '책의 내용에 관련된 것을 계통적으로 읽는 것'이다.
- ④ 제4단계는 신토피칼로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한 권만이 아니라 몇 권의 책을 읽는 것'이다.

또한 라이프니즈 독서법은 몇 번이고 같은 책을 읽는 재독법(再讀法)이다.

### 4. 지식창조프로세스와 독서학습과정

1998년에 제시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있다. 이러한 지식창조적 학습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서학습과 지식창조는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가. 두 과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3〉 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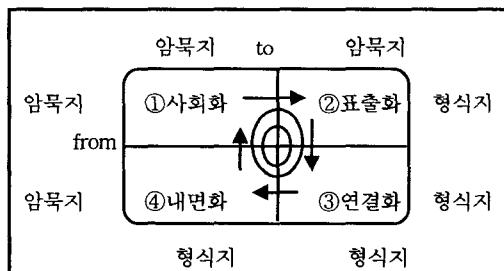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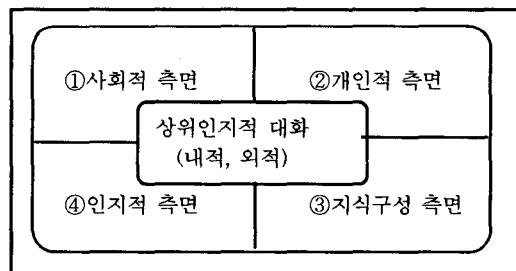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목표)	• 전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총설
(내용)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
(운영)	• 학생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
(제도)	•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1) Nonaka 지식창조 프로세스

Nonaka가 제안한 지식창조프로세스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나선형 지식창조과정으로 크게 4단계로 변환된다. 첫째,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환되는 사회화과정이다. 특정개인 또는 집단이 주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지식을 전수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을 통해 얻은 노하우, 직무 중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과정은 독서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먼저 책에서 얻은 지식정보를 공동화하는 경험을 통하여 정신모델이나 기술 등의 암묵지를 창출한다. 둘째,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생성되는 표출화 과정이다. 암묵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형식지로 전환함으로써 다른 동료들과 그 형식지

13)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교육월보, 1998. 9.

를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또는 학습모형개발에 관한 개념의 창출,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과 독서교육지도자의 교육철학의 문서화, 숙련노하우의 문서화, 고객이 보이지 않은 욕구의 구체화 즉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째,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변화되는 연결화 과정이다. 개인과 집단이 각각의 형식지를 합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공유된 타인의 지식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지식정보와 합쳐 실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또한 필자가 새로운 글이나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넷째, 형식지에 암묵지로 내재화되어 가는 내면화과정이다. 조직구성원들은 이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암묵지를 확장하고 재구성한다. 예를 들어 신제품의 사양과 제품관련 문서, 독서감상문의 종류와 감상문 관련 형식이 조직내에서 공유되어 가는 것은 암묵지가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하우, 매뉴얼 등을 시뮬레이션 또는 롤플레잉 등에 의해 개개인의 내부에 체험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들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의 완성단계로 독서에 의한 이루어지는 성찰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그림1>, <그림 2> 참조).

<그림 1> 지식창조프로세스<sup>14)</sup><그림 2> 독서학습과정<sup>15)</sup>

## 2) 독서학습과정

독서학습은 크게 사회적인 측면, 개인적 측면, 지식구성측면, 인지적 측면에서 독서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1) 독서학습의 사회적 측면

이 단계는 지식창조프로세스의 사회화와 유사한 과정으로서 독서학습은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난관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잠재적 자원으로서 다른 학생들과 교사를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책의 공유 및 토의를 위한 활동으로서 교사와 학생들이 읽은 책

14) Nonaka, *op. cit.*

15) Schoenbach et.al., *op. cit.*

중에서 재미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서로 공유하여 읽기, 여가선용을 위한 책을 선택하여 토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텍스트의 아이디어와 사건과 언어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을 공유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성공적인 독서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은 존중하는 마음과 협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의 독서과정을 탐색하여야 한다.<sup>16)</sup>

### (2) 독서학습의 개인적 측면

독서학습의 개인적 측면은 개별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다양한 관계에 초점을 둔다. 독서학습이 개인적 측면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은 독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독서과정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고, 높은 수준의 독서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난관을 극복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생소한 텍스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독서경험과 독서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쓰거나 발표하기, 자신의 독서습관과 기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글을 쓰거나 발표하기, 독서능력개발을 위한 목표달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등을 들 수 있다.<sup>17)</sup>

### (3) 독서학습의 인지적 측면

독서학습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의 종체적 인지전략에 초점을 둔다. 독서과정에 있어서 인지전략들은 자신의 독서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이들 인지전략들을 습득하여 자신의 독서과정에서 이들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독서에 대한 자신감과 독해과정에 대한 조정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독서의 과정에서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는 독서활동에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자신이 이해한 내용의 통합전략과 정교화 전략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필자와 독자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기, 텍스트의 본문 밖에 있는 주석이나 참고자료들을 통하여 텍스트의 내용발표하기, 텍스트에 전술된 내용을 도식화하기,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 및 지식과 다른 텍스트의 내용 등을 연결짓기, 혼란스러운 부분을 다시읽기, 텍스트의 전체부분을 요약하거나 풀어서 설명하기, 은유나 유추를 통하여 텍스트의 주요개념과 내용을 표상하기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서과정을 조정하고 점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16) J. R. Gavelek, "The Social Context of Literacy and School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he Contexts of School-based Literacy*, edited by T. E. Raphael(New York : Random House, 1986), pp.3-26. ; L. S. Vygotsky, *Thought and Language*, translated by A. Kozulin(Cambridge, MA : MIT Press, 1986) ; 박영목, 독서교육활성화 방안연구,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pp.11-12. 재인용.

17) *Ibid.*, pp.14-16.

연습하고, 독해결과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서전략과 독서발달을 평가하게 된다. 학생들은 또한 텍스트로부터 구성한 의미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함과 아울러 독서방식과 독서전략에 대한 각자의 의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sup>18)</sup>

#### (4) 독서학습에 있어서 지식구성측면

텍스트에 제시된 아이디어의 세계에 관한 지식, 텍스트의 조직방식에 관한 지식, 텍스트에 나타난 사고방식과 언어사용방식에 관한 지식 등은 독해과정 자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능숙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텍스트의 주제에 관하여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텍스트에 제시된 아이디어 자신의 기존지식을 연결짓고 더욱 정교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독자 자신의 기존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텍스트의 주제에 관한 선행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학생들 일수록 텍스트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며 이해한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된다. 또한 능숙한 독자는 독해의 과정에서 텍스트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특정학문분야 혹은 교과의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학문 분야 혹은 교과의 특징적인 사고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상위인지대화는 반성적 사고임과 동시에 회귀적 사고이다. 상위인지적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신의 독서전략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음미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상위인지적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독서의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 인지적 측면, 지식구성 측면사이를 연결지을 수 있게 된다.<sup>19)</sup>

### III. 독서콘텐츠 지도 현황과 방법의 문제

#### 1. 독서지도자의 자질

##### 1) 나침반적 자세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듯이 교사는 책읽기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같이 읽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학생들 따로 교사 따로라는 일선학교 선생들의 독백어린 푸념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

---

18) *Ibid.*, pp.16-18.

19) *Ibid.*, pp18-21.

다. 경직된 틀 속에서 책읽기를 강요하면 학생들은 만화책이나 흥미위주의 책을 읽는다거나 편지쓰거나 낙서로 시간을 때운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도 잡지, 신문, 흥미위주의 소설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독서를 장려하고, 항상 나침반적 자세로 새로운 독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전문가적 학습자세

우리의 현실에서 독서는 국어교사나 사서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대부분 국어교사나 사서교사의 몫이다. “학생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모른채 오직 학생들에게 책읽기만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독서의 흥미를 잃게 하고 교과 전과목에 대한 관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sup>21)</sup>라는 현직 교사의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현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책읽기는 문학, 소설, 전기문, 시 등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멀티미디어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할 수 있도록, 각 교과목별로 전공분야의 교사들이 책읽기에 전문가적 학습자세를 가져야 한다.

# 2. 책읽기와 도서선정

## 1) 책 읽기

모든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어떤 책을 읽으시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독후감을 제출하시오. 이것은 마치 기계인간이 사는 사회와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우리의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읽으시오라고 권장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 각자가 책 읽는 능력과 경험, 자라온 환경에 따른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고전을 제시하여 책 읽기를 권하는 것은 무리이다. 고전 또한 서양 중심이며 번역서 또한 번역의 오류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고전을 통독했다할 지라도 학생에게 독서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자문하고 싶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고전을 리터러시(이해, literacy)할 수 있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도서선정

학생들에게 책을 선정해주는 ‘권장도서목록’은 교사가 인터넷, 책, 언론매체, 교육기관, 각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도서목록을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권장도서로 책을 읽는 행위는

20) <http://cyber.geti.or.kr/2003-교양/김창수/독서지도의 실제.hwp> [인용 2003. 11. 30].

21) J교사(전남 화순 C중학교 재직). [인터뷰 2003. 11. 25].

단순히 컴퓨터처럼 책 내용을 정리하고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찾게 하거나 관련된 해설을 읽고 독후감 쓰기를 하는 획일적인 책읽기에 불가하다. 이것은 주입식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창의적 사고력 배양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다.

독서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도서선정도 책의 울타리를 벗어나 멀티미디어 매체까지 확대되어 학생들에게 독서콘텐츠 선정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3. 독서결과 중시

#### 1) 대회중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 각 기관에서 공문이 들어오고 학교장 지시하에 또는 교사의 참여하에 학생들에게 책읽기를 권장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대표로 나가고 그 결과 장원, 최우수상, 차상, ... 등을 받는다. 그 결과 해당학교의 교사에게는 인사점수가 올라가고, 수상학생에게는 학과 성적과 대학진학에 도움을 준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현장이다. 과연 짧은 시간에 독서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까. 나타날지도 오래 걸까. 여기에서 우리는 보이기 위한 즉 뽑내고 싶은 실적위주의 책읽기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 이유는 책읽기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효과나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성과 위주의 책읽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 2) 독후감 중시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게 하고, 그 결과 우수한 학생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 대신에 독후감을 써오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후감 쓰기가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즉 독후감 형식이 줄거리를 일부 쓰고 중간에 몇 마디의 해설을 넣고 참으로 감동이 있었다라고 끝을 맺는다.

독후감 쓰기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책을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학생들 스스로 형편없는 글까지 쓰게 함으로써 책읽기와 글쓰기를 더욱 싫어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독후감 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지금보다 새롭게 개선된 책읽기와 글쓰기 그리고 생각하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sup>22)</sup>

최근에 흥미있는 새로운 책읽기 지도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화감상화 그리기, 동화구연, 독서일기 쓰기, 독서 마인드맵, 독서퀴즈대회, 독서신문만들기, 독서 극화 발표대회, 책 광고 문안 만들기, 신문활용학습, 십자퍼즐 만들기, 읽기자료집 만들기, 시낭송테이프 만들기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독서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http://cyber.geti.or.kr/2003-교양/김창수/독서지도의 실제.hwp> [인용 2003. 11. 30].

#### 4. 독서공간

우리의 교실환경은 열악한 시설에 주변으로부터 오는 환경적 오염발생으로 독서의 위험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학습위주의 책읽기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활용한 자유로운 책읽기가 장려되어야 한다. 일찍이 조선 전기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선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위한 수양·연구 시설인 독서당(讀書堂)<sup>23)</sup>이 있었다. 이것은 임금이 선비들을 위한 독서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러한 시설로써 정보교육센터인 학교도서관을 자연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책읽는 독서당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 5. 독서자원 영역

##### 1) 도서

한 나라의 장래는 동량지재(棟梁之材)에 달려 있다. 즉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해 참 일꾼으로 양성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 그 원인은 TV와 인터넷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서의 의미를 과거의 책으로 보는 것이다. 정보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독서자원은 책이 전부였다. 그러나 IT기술의 발전은 독서자원 즉 도서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독서콘텐츠로서 TV, 인터넷, 영상, 애니메이션 등은 책읽기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멀티미디어

책 읽기는 단순한 책의 범주를 벗어나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진행되고 있다. 즉 책읽기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 경험(체험), 느낌,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서자원 영역의 확대는 새로운 책읽기 방법을 제안하고 독서콘텐츠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23) 1426년(세종 8)에 집현전 대제학 변계랑(卞季良)이 세종의 명을 받아 재주와 덕행이 뛰어난 문신을 선정하여 장의사(藏義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게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세조 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1491년(성종 22)에 상설기구로 ‘남호(南湖) 독서당’이라는 혼호(懸號)를 달고 복구되었다. 1517년(중종 12)에는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玉水洞) 한강 연안의 두모포(豆毛浦)에 독서당을 신축하고 ‘동호(東湖)독서당’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 소실될 때까지 학문연구와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정조 때 규장각이 설치됨에 따라 완전히 소멸되었다.

<<http://100.naver.com/100.php?id=48773&cid=AD1057742420807&adflag=1>>

## 6. 독서방법과 철학

학교현장에서 책읽기는 교과서를 필독서라 생각하고 다른 책을 부속된 것으로 여기는 마음에 사로잡혀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교과서보다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책읽기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즉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을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인터넷, 영상, 음악을 통해 다양한 독서콘텐츠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인식, 고정된 틀 속의 생각을 이제 가감이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기반으로 더 좋은 독서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독서는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였을까. 송 나라의 유명한 문장가 구양수는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고 했다. 이것이 이른바 삼다설(三多說)이다. 좋은 글을 쓰는 데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다. 남이 쓴 글을 찾아서 널리 읽고, 폭넓고 깊은 사색을 하면서 많이 써 보는 가운데 자연히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글쓰기에 관한 고전적인 발언이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sup>24)</sup>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소제목을 눈여겨보는 방법, 토막(단락) 앞뒤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 토막(단락)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료를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수용하고 처리하며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sup>25)</sup>

## 7. 독서평가

독서평가는 독자 스스로의 지식, 기능 등을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이다. 평가는 학생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길러주고 그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책읽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11월에 실시된 수학능력평가의 언어영역에서 유사어를 찾는 문제가 정답이 두 개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실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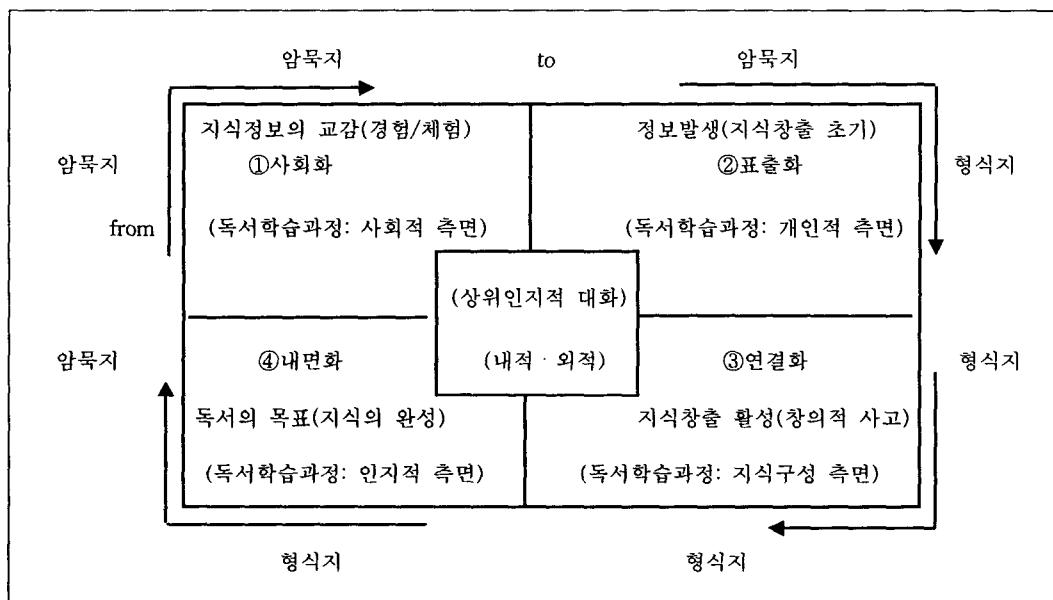
따라서 책 읽기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평가방법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읽기에 대한 평가단계, 평가문항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객관적인 독서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4) [http://urimal.cs.pusan.ac.kr/edu\\_sys\\_new/new/docu/writing/step/think/think1.asp](http://urimal.cs.pusan.ac.kr/edu_sys_new/new/docu/writing/step/think/think1.asp) [인용 2003. 11. 30].

25) <http://cyber.geti.or.kr/2003-교양/김창수/독서지동의 실제.hwp> [인용 2003. 11. 30].

## IV. 지식창조프로세스 기반 독서콘텐츠 관리

독서콘텐츠지도 방법과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독서교육(책읽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행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책읽기의 활성화 즉 독서콘텐츠 관리의 활성화에 대한 모형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림 3> 지식창조프로세스와 독서학습과정 기반 독서콘텐츠 관리

<그림 3>은 지식창조프로세스와 독서학습과정 기반 독서콘텐츠 관리를 모형화 한 것이다. 이것은 암묵지와 형식지 그리고 독서학습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사회화(사회적측면)→ 표출화(개인적 측면)→ 연결화(창의적 사고)→ 내면화(인지적 측면)] 단계별로 실사례를 통해 그 모형을 제시하였다.

### 1. 사회화형 독서콘텐츠

책읽기를 통해 독서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독서지도의 사례를 통해 동기유발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표 4〉 독서지도사례 -동기유발<sup>26)</sup>

교사	대상	독서지도 내용
강선자	가람 초등학교	<p>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매주 화, 수요일 아침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에 얹힌 이야기 들려주기</li> <li>• 모범독서 감상문 소개하고 발표 해 보기</li> <li>• 위인의 연표 내용 살펴보기</li> <li>• 이 달의 문화 인물에 관련된 내용 들려주기</li> <li>• 감상화 보며 작품 이야기하기</li> <li>• 등장 인물에 관한 이야기하기 해 보기</li> <li>• 지은이에 대한 이야기 해 주기</li> <li>• 작품의 줄거리에 관한 이야기 해 보기</li> <li>• 독서퀴즈 문제 제시하고 풀어보기</li> </ul>
이문화	도동초등 학교	<p>학급에서 독서실태의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책보다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비디오 등을 선호하여 책을 멀리하는 학생이 많고 학교 교과공부 및 방과후 각종 학원 순례(?)로 인하여 독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p> <p>이상의 실태분석의 결과로 다음의 학급독서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히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p> <p>첫째, 독서에의 흥미유발을 위하여 '이야기 나라' 시간을 운영하였다.</p> <p>국사단원에 진입하는 사회시간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시간에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각종 위인들의 전기 등의 관련 내용 및 연계된 역사 이야기를 전 교과에 걸쳐 이야기와 함께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의 이해도 높고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어 독서에 관심을 갖게 했다. 아울러 학습단원에 관계된 책들을 소개하여 학급코너에 게시함으로써 독서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p> <p>둘째, 학급 문고의 자율적 운영과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p> <p>학급 문고 담당 아동을 일정기간 번갈아 가면서 지정 운영하였고 도서 대출 등 관리 또한 아동들을 중심으로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도서의 일부분이 분실되더라도 아동들이 보다 자유롭게 학급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끝으로, 학교 도서실 이용을 권장하고 지역 내 공립도서실 이용을 안내하여 부모님과 함께 외출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공립도서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숙제로 도서관 가기 혹은 도서 열람증 만들기 등을 제시하였다.</p>
김행선	방경초등 학교	<p>보다 재미있고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인공에게 편지쓰기</li> <li>• 독서 마인드맵하기</li> <li>• 독서퍼즐게임</li> <li>• 독서명언만들기</li> <li>• 주인공 찾기 스무고개</li> <li>• 독서표어짓기</li> <li>• 독서퀴즈</li> <li>• 내용 듣고 책이름 알기</li> <li>• 글쓴이에게 편지쓰기</li> </ul>
이미정	봉래초등 학교	<p>각 교실 뒷면 환경판에 독서 코너를 설치하여 독후감이나 독서를 주제로 한 표어, 포스터를 제시하고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등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아침 인성 방송 조회 시 금주의 독서 시간(5분)을 설정하여 금주의 권장 도서 소개, 독서 우수아 소개, 독후감 발표 등을 실시하여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p>

<표 4>의 사례들은 수많은 독서효과 사례 중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독서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현장 교사들의 독서에 대한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한 초등학생의 글 속에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서 나타나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볼 수가 있다.

26) [http://210.99.38.199/technote/board/업무·연구부/upfile/2000독서활동우수...\[인용 2003. 11. 30\].](http://210.99.38.199/technote/board/업무·연구부/upfile/2000독서활동우수...[인용 2003. 11. 30].)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해초등학교 6학년2반 문미선 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독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부터 독서 시범 학교를 시작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독서 명언 암송대회,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사랑하는 학교, 책을 많이 읽는 학교, 그래서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책벌레도 많고 공부벌레도 많지요. 저도 그중 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지혜를 쌓는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때 배움의 기쁨과 깨달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책벌레가 되고 퀴즈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반 만의 독특한 독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책을 읽고 틈틈이 쌓은 실력으로 전교생 독서 골든벨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울린 골든벨의 소리는 참으로 은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야! 저 누나 골든벨 울린 누나 아니야?” “맞아”.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 건 바로 많은 독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의 독서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틈만 나면 책을 잡습니다.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밤새도록 읽기도 합니다. 저는 시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인물도 윤동주 시인이지요.

시인이 되려면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꾸준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 저 큰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뚝 설 그 날까지 저는 큰 뜻을 품고 더욱 열심히 책을 읽겠습니다.

([http://nhlib.or.kr/Ant\\_board/data/sub3\\_1\\_1/](http://nhlib.or.kr/Ant_board/data/sub3_1_1/))

이에 필자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무위식적 암묵지를 교감하는 단계를 사회화형 독서콘텐츠 관리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목적없이 책을 읽다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목적의식이 발생하여 지식과 정보를 암묵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전자의 독서는 많은 책읽기(多讀)의 결과이고 후자의 독서는 책의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읽는 책읽기(精讀)의 결과이다.

따라서 독서는 다독에서 정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독은 자율적 사고(free thinking)를 풍부하게 해주어 아이디어 창출을 풍부하게 해준다. 이에 반하여 정독은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통해 논리정연한 글을 놓고 새로운 작품을 생산케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다독과 정독은 창의성교육의 기초가 된다.

## 2. 표출화형 독서콘텐츠

표출화형 독서콘텐츠 관리는 독서후에 나타나는 행위로서 책을 읽는 동안(다독과 정독) 목적의식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책과 디지털콘텐츠를 통해 결과물을 낳게 한다. 이 결과물은 독후감과 감상문 등이다. 이 단계에서는 독서콘텐츠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글읽기는 글쓰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책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읽고, 책 속에 평소 고민하던 문제가 나오면 자기 생각과 서로 견주어보면서 책을 읽는다. 책은 누군가에게 읽혀서 그 의미가 확인되는데, 그 읽는 과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경험과 가치체계가 다른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고서도,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가 많다.

따라서 책읽기는 단순히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다. 또한 의미는 저자가 쓴 책에도 있고 읽는 독자에게도 있다. 그리고 책의 의미가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듯, 독후감도 독자에 따라 달라진다. 필자는 이 각자가 책을 읽는 과정 그 자체를 글로 쓰는 것이 독후감이라고 생각하며, 책을 읽어나가면서 떠오르는 여러 생각과 감정, 느낌, 경험, 가치판단들을 그대로 글로 재현하려는 방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독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원래 책과는 또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지식창조의 초기단계로서, 독서콘텐츠를 표출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독서를 통해 독자를 더욱 발전시킨다. 책을 읽고 단계별로 쓰기를 훈련하고 이를 영상화하여 독서감상문을 쓰는 모델을 <표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서콘텐츠는 독서감상화, 독서만화, 독서광고, 독서편지 등 다양하게 전개된다.

〈표 5〉 독후감 쓰기 훈련, 영상화 모형, 독서감상문 쓰기지도 모형<sup>27)</sup>

독후감 쓰기 훈련 모형			독서후 영상화 단계												
단계	별명	내용	단계	영상화방법	영상화 내용										
1 단계	백설기 떡식	· 주로 사건을 나열하다가 맨 끝에 생각과 느낌을 한꺼번에 쓰고 마무리하는 단계(자기 주견의 언급)	1 단계	독서스케치 하기	· 독서 내용의 인상깊은 장면을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재생시키기. 여백에 책이름, 장면,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해 두기										
2 단계	시루 떡식	· 사건 발달 장면을 묘사하고는 자기 생각과 느낌을 쓴 다음, 사건이 전전되는 다른 장면을 쓰고 그에 따른 자기 생각, 느낌 식으로 장면별로 생각, 느낌을 가미하는 단계(자기 주견의 언급과 바람직한 행동 묘사)	2 단계	독서기록 하기	· 주인공의 훌륭한 점, 감명을 받은 언행 등을 기록하기										
3 단계	찹쌀 떡식	· 사건 본의의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직접 또는 간접), 감정 등에 그 사건의 장면이나 분위기를 끄집어 들어가며 차원 높게 엮어 가는 글(자기 주견에 비추어 사건을 다루는 차원)	3 단계	독서일기 쓰기	· 독후감을 일기 형태로 쓰되 최근의 자기 생활 반성과 주인공의 훌륭한 점등을 대비시키며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게 하기.										
			4 단계	독서감상문 쓰기	· 위의 1,2,3을 바탕으로 독서감상문 쓰기										
					준비물 16절스 케치북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지도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쓰기 전의 지도</td> <td>1)재미났던 대목 떠올리기 2)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 메모해 두기 3)감상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해 보기 4)감상문 표현 형식 정하기 5)감상문 쓰기의 차례 정하기 6)자기의 구상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기</td> </tr> <tr> <td>쓰기 지도</td> <td>1)글머리를 다듬어 쓰기 2)초벌 원고 쓰기 3)쓰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고쳐 쓰기</td> </tr> <tr> <td>쓰고 난 후의 지도</td> <td>1)자가 쓴 감상문이 책의 내용을 잘 소화시켰는가 알아보기 2)느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는가 알아보기 3)글의 내용이 잘 짜여져 있는가 살펴보기 4)자기의 능력껏 성실하게 썼는가 생각해 보기 5)다른 사람도 자기가 느낀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td> </tr> <tr> <td>기타 주의할 내용</td> <td>1)감상문의 제목은 읽은 책 제목이 아닌 따로 재미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2)이야기의 줄거리와 느낌을 따로 쓰지 말고 그룹을 냉정히 가려서 그론 것은 그르다고 쓴다. 3)작품의 한 부분만 쓰는 것보다는 다 읽고 나서 전체의 내용을 고루 담는다. 4)읽어가면서 크게 감동받은 느낌이나 감동을 강조해서 쓴다. 5)무조건 책 내용이 옳다고 쓰지 말고, 옳고 그름을 냉정히 가려서 그론 것은 그르다고 쓴다. 6)글의 앞뒤가 잘 연결되도록 독서 감상문만 읽어도 이야기의 흐름을 대강 짐작할 수 있도록 쓴다. 7)작품을 읽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점을 뉘우쳤는가를 쓴다. 8)책을 어떤 동기에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 앞으로의 나의 독서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었는가를 쓴다.</td> </tr> </tbody> </table>						단계	지도 내용	쓰기 전의 지도	1)재미났던 대목 떠올리기 2)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 메모해 두기 3)감상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해 보기 4)감상문 표현 형식 정하기 5)감상문 쓰기의 차례 정하기 6)자기의 구상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기	쓰기 지도	1)글머리를 다듬어 쓰기 2)초벌 원고 쓰기 3)쓰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고쳐 쓰기	쓰고 난 후의 지도	1)자가 쓴 감상문이 책의 내용을 잘 소화시켰는가 알아보기 2)느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는가 알아보기 3)글의 내용이 잘 짜여져 있는가 살펴보기 4)자기의 능력껏 성실하게 썼는가 생각해 보기 5)다른 사람도 자기가 느낀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기타 주의할 내용	1)감상문의 제목은 읽은 책 제목이 아닌 따로 재미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2)이야기의 줄거리와 느낌을 따로 쓰지 말고 그룹을 냉정히 가려서 그론 것은 그르다고 쓴다. 3)작품의 한 부분만 쓰는 것보다는 다 읽고 나서 전체의 내용을 고루 담는다. 4)읽어가면서 크게 감동받은 느낌이나 감동을 강조해서 쓴다. 5)무조건 책 내용이 옳다고 쓰지 말고, 옳고 그름을 냉정히 가려서 그론 것은 그르다고 쓴다. 6)글의 앞뒤가 잘 연결되도록 독서 감상문만 읽어도 이야기의 흐름을 대강 짐작할 수 있도록 쓴다. 7)작품을 읽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점을 뉘우쳤는가를 쓴다. 8)책을 어떤 동기에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 앞으로의 나의 독서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었는가를 쓴다.
단계	지도 내용														
쓰기 전의 지도	1)재미났던 대목 떠올리기 2)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 메모해 두기 3)감상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해 보기 4)감상문 표현 형식 정하기 5)감상문 쓰기의 차례 정하기 6)자기의 구상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기														
쓰기 지도	1)글머리를 다듬어 쓰기 2)초벌 원고 쓰기 3)쓰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고쳐 쓰기														
쓰고 난 후의 지도	1)자가 쓴 감상문이 책의 내용을 잘 소화시켰는가 알아보기 2)느낀 것이 뚜렷하게 드러났는가 알아보기 3)글의 내용이 잘 짜여져 있는가 살펴보기 4)자기의 능력껏 성실하게 썼는가 생각해 보기 5)다른 사람도 자기가 느낀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기타 주의할 내용	1)감상문의 제목은 읽은 책 제목이 아닌 따로 재미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다. 2)이야기의 줄거리와 느낌을 따로 쓰지 말고 그룹을 냉정히 가려서 그론 것은 그르다고 쓴다. 3)작품의 한 부분만 쓰는 것보다는 다 읽고 나서 전체의 내용을 고루 담는다. 4)읽어가면서 크게 감동받은 느낌이나 감동을 강조해서 쓴다. 5)무조건 책 내용이 옳다고 쓰지 말고, 옳고 그름을 냉정히 가려서 그론 것은 그르다고 쓴다. 6)글의 앞뒤가 잘 연결되도록 독서 감상문만 읽어도 이야기의 흐름을 대강 짐작할 수 있도록 쓴다. 7)작품을 읽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점을 뉘우쳤는가를 쓴다. 8)책을 어떤 동기에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 앞으로의 나의 독서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되었는가를 쓴다.														

27) <[http://211.34.13.3/newhome/center\\_frame/data/upmoo/upmoo11/file/책읽기자...](http://211.34.13.3/newhome/center_frame/data/upmoo/upmoo11/file/책읽기자...)>에서 영도초등학교 박선미 교사의 의견과 필자의 의견이 상호보완되어 제시한 모형.

### 3. 연결화형 독서콘텐츠

이러한 독후감과 감상문들은 새로운 창의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신지식정보를 창출하게 한다. 이 결과는 글, 논문, 작품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단계는 필자의 의견과 제3자의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접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식활성화과정이다. 즉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을 구성하는 독서학습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독서발표와 토론, 생각 이어 쓰기, 독서메모장 쓰기, 그림 그리기, 독서광고문안 도안, 책 소개하기, 독서 편지 쓰기, 이야기 이어 쓰기, 독서작가 되기, 독서작가에게 편지 쓰기,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코너 만들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표 6>에서 제시하는 지식창출 독서콘텐츠 모형은 독서콘텐츠의 내용을 음미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모형이다.

<표 6> 지식창출 독서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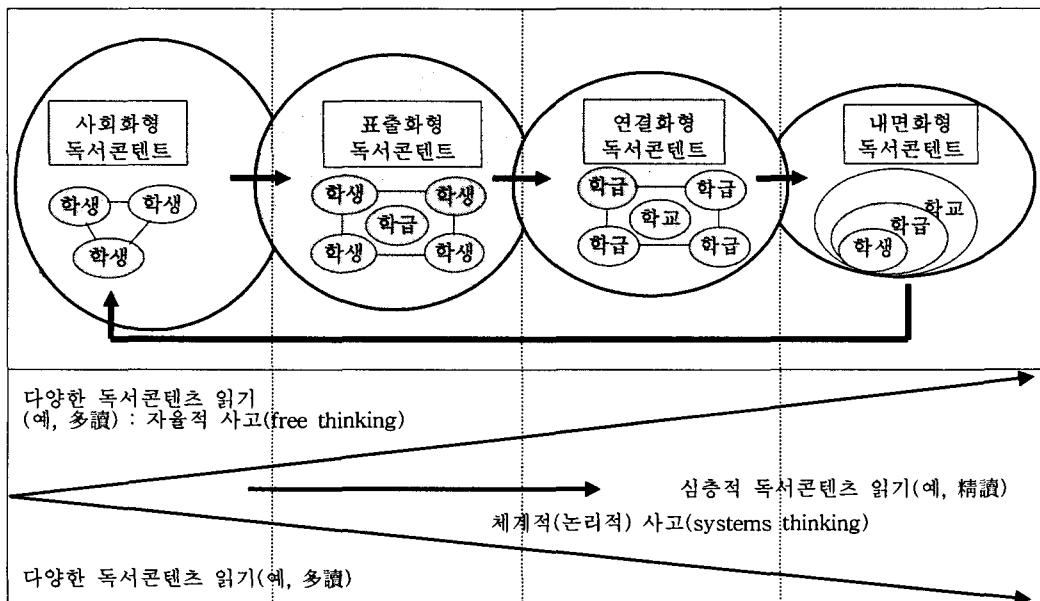
방법	대상	내용	자료
독서발표와 토론	모두	*토론주제 설정 : 혼자 먹으려다 굶은 주인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하기	토론활동자료 (도서, 토론학습장)
생각 이어 쓰기	모두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민주적인 학의과정을 익히며, 개인의 경험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토론활동자료 생각노트 모둠공책
독서메모장 쓰기	모두	*책을 읽은 후 읽은 책에서 느낀 점이나 감동을 받은 내용을 잘 정리 - 독서메모습관 *주인공의 성격, 지은이의 중심생각, 줄거리전개, 나의 생각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	독서메모장
그림 그리기	모두	*책을 읽고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독후감 쓰기에 질린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생각을 한 장면으로 정리해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읽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받은 인상, 장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림동화나 만화를 그릴 때는 문단이 기승전결에 맞게 잘 나눠도록 하고, 주제화나 공동화를 그릴 때는 책의 주제를 잘 나타내도록 한다. • 그림동화 그리기 •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그리기 • 만화그리기 • 그림동화 창작	16절지 스케치북 물감 크레옹파스
독서광고문 도안	모두	*독서주제, 알리고 싶은 말,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 어느 곳에 광고, 광고하는 글과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광고도구 16절지 스케치북
책 소개하기	모두	*학생들은 자기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과정에서 책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깊게 해준다. 또한 책 소개는 자기가 소개한 책을 아끼고, 두고두고 애정을 느끼도록 해준다 • 친구나 친지에게 편지로 책 소개하기 • 3분말하기 • 책 광고문안 만들기	독서자료 편지지 16절지 스케치북
독서편지 쓰기	모두	*읽은 책을 재음미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넣어 편지글로 써보기 *모범 독서편지 분석→독서편지 구상지 활용→독서편지 쓰기	독서편지지

이야기 이어쓰기	모두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사건 전개와 결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써 나가도록 하는 과정은 생각하는 힘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 또한 한 가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시작은 같아도 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해준다.	독서자료
독서작가 되기 (바꿔쓰기)	모두	*바꾸고 싶은 인물의 성격, 바꾸고 싶은 내용, 내가 꾸미는 이야기	작가활동메모지 (독서일지)
독서작가에게 편지쓰기	모두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등을 작가에게 편지로 쓰게 하여 책읽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작가에 대한 편지쓰기는 추상적으로 느끼던 글의 내용을 갑자기 구체적 모습으로 다가서게 한다. 따라서 책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높혀주고, 좀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사고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독서자료 편지지
독서신문 만들기	모두	*독후표현활동의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집단사고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작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서토론반별로 협의하여 편집하고 교정하기</li><li>• 독서신문 기사내용(독후표현)은 분담하여 집필하기</li><li>• 횟수지정(예, 월1회), 크기고려(학년별)</li><li>• 독자의 난을 통한 다른 토론반과 생각교환</li></ul>	전지, 색종이, 스티로폼, 풀, 토론결과물
독서코너 만들기	모두	*독서코너를 설치하여 독후감이나 독서를 주제로 한 표어, 포스터를 제시하고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등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참여를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li><li>• 책이름, 주인공, 작가, 인물의 성격찾기 퀴즈문제 출제제시</li><li>• 위인전을 읽고 업적, 본받을 점 소개</li><li>• 읽은 책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줄거리, 감명깊은 내용 등)</li></ul>	독서권장표어 독서퀴즈문제 위인과의 대화 책소개

#### 4. 내면화형 독서콘텐츠

지식정보창출은 자신에게 내면화됨으로써 자신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인지적 과정이다. 즉 형식지가 암묵지화 됨으로써 작자와 독자의 머리 속에 독서콘텐츠화된 온갖 지식정보가 내재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독서자의 생활과 교육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독서의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수많은 영웅들을, 미인들을, 신비로운 생명체를, 우주를, 믿음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발생되는 사건에 대응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독서콘텐츠를 활용하게 되는 사회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단계별 독서 학습과정을 지식창조프로세스에 접목한 결과 두 과정은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나타나는 통합형 독서콘텐츠 관리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통합형 독서콘텐츠 관리 프로세스

따라서 독서콘텐츠 관리는 사회화형 독서콘텐츠에서 내면화형 독서콘텐츠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표출화와 연결화는 궁극적인 독서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필터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지식창조프로세스형 독서콘텐츠는 자율적 사고에 의한 독서콘텐츠 읽기에서 체계적 사고에 기반한 심층적 독서콘텐츠 읽기로 진행되면서 독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V. 결 론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만큼 독서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충족시켜 풍부한 사고에 의한 지식창출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여 독서콘텐츠의 범주를 넓히고 체계적 사고에 의한 독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따라야 한다.

- 1)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독서를 장려하고, 항상 나침반적 자세로 새로운 독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과학, 사회, 멀티미디어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할 수

있도록, 각 교과목별로 전공분야의 교사들이 책읽기에 전문가적 학습자세를 가져야 한다.

3) 다수의 학생들이 책읽기를 좋아하고 고전을 리터러시(이해, literacy)할 수 있는 배경적 지식을 길러야 한다.

4) 주입식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창의적 사고력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권장도서목록'에 의한 도서선정 책의 유타리를 벗어나 멀티미디어 매체까지 확대되어 학생들에게 독서콘텐츠 선정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5) 우리의 현실은 책읽기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효과나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성과 위주의 책읽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6) 최근에 흥미있는 새로운 책읽기 지도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화감상화 그리기, 동화구연, 독서일기 쓰기, 독서 마인드맵, 독서퀴즈대회, 독서신문만들기, 독서극 발표대회, 책 광고 문안 만들기, 신문활용학습, 십자퍼즐 만들기, 읽기자료집 만들기, 시낭송테이프 만들기 등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독서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독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정보교육센터인 학교도서관을 자연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책읽는 독서당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8) IT기술의 발전은 독서콘텐츠로서 TV, 인터넷, 영상, 애니메이션 등은 책읽기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책읽기는 멀티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정보, 경험(체험), 느낌,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확대시켜야 한다.

9) 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을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인터넷, 영상, 음악을 통해 다양한 독서콘텐츠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인식, 고정된 틀 속의 생각을 이제 가감이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기반으로 더 좋은 독서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10) 책 읽기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평가방법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전환되어야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야한다 즉 책읽기에 대한 평가단계, 평가문항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객관적인 독서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11) 교육현장에서 책읽기의 활성화 즉, 독서콘텐츠 관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식창조프로세스와 독서학습과정 기반 독서콘텐츠관리에 대한 모형을 사회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모형이 독자, 학교,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지식창출로 이어지는 독서학습활동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